

LISTEN & LESSON
WITH **탁영아**

현재 사우스이스턴 대 상주 연주자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활발히 공연을 꾸며온 피아니스트 탁영아(이스턴 음대 교수)가 피아노 학도들을 만나, 발전해나기는데 자양분이 될 조언을 들려주었다. 서울예고 재학 중 미국 유학길에 올라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뒤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총장 장학금을 수혜하며 디플롬을 받고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그녀는, 김혜빈(연세대 2학년) · 박근우(연세대 2학년) · 박민경(경희대 2학년) 등 참가 학생들의 다양한 고충과 궁금증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혜빈 · 탁영아 · 박민경 · 박근우

탁영아는 무엇보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무대 공포증이나 슬럼프를 극복하고 연주에 있어서 자기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본인만의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혜빈 무대 공포증에 대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무대에서 전혀 안 떨리는 사람은 없죠. 또한 너무 안 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무대에서는 긴장되고 떨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황하지 말고 무대에 나갔을 때 긴장하는 에너지를 연주에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게 되면 더 크게 되니까, 결국에는 악보에 몰입해야 하고 대처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 있어야 하죠. 청중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기보다는 음악에 젖어 온전하게 집중하면 청중도 공연에 몰입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연습을 확실히 하면 그만큼 떨림은 줄어들죠.

자주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쳐본다든지 하는 여러 종류의 리허설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연습실과 무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이죠. 공연이 청중과 음악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즐겨야 합니다. 그외에 명상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녹음을 해서 들어본다든지 하는 여러 방법을 찾아서 무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대비해야 하죠. 여러 방법을 강구해도 전혀 도움이 안될 정도로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할 경우는 다른 길로 가야할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음악인은 이런 점 때문에 음악 학자 분야로 가서 크게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빈 다양한 연습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생각을 하고 연습에 뛰어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려는 거죠. 하루 계획과 일주일 계획을 잡는 식으로 계획하는 등 주어진 시간 안에 대충 어떤 것을 할지 그려봐야 하고요. 피아노 없이 악보 공부를 하고, 치기전에 상상으로 들으면서 연습을 하면서 귀 훈련을 해야하죠. 하나의 프레임이나 아티클레이션을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만들지 고민하는것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음악의 매력이죠. 훨씬 더 파고들면 깊고 넓게 할게 많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성취감과 기쁨도 커지죠. 얼마큼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정된 연습 기간 동안 잘해야 하죠. 어떤 환경에서도 나만의 연습 방법을 구축한다면 해낼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장르의 음악도 방대하게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포니, 실내악, 가곡 등 다양한 장르를 들으면서 견문을 넓히는 게 중요하죠. 단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멀리 보라고 조언하고 싶은데요, 레퍼토리 확대를 하면서 5년 후 정도까지 큰 계획을 가지고 어느정도 그려보는게 필요합니다.

박민경 피아노를 치다보면 슬럼프가 올때가 많은데요. 선생님도 슬럼프



탁영아

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근우 연습에 슬럼프가 올 때 고등학생 때는 잡아주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성인이 되면 자유로워진 만큼 또 헤아해지기가 쉬운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 저도 박사 과정 수업을 다 마치고 졸업 시험만 남았을 무렵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그 시점에는 음악을 안 했으면 더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결국 피아노 앞에서 위로를 받았죠. 내 손끝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행복을 너무 거대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있는 것을 못 깨달았구나 알게 되었죠. 슬럼프가 올때는 미뤄뒀던 취미, 책을 읽어 본다든지 박물관 감상한다든지 하면서 거리를 잠시 두는 것도 좋아요. 스스로를 너무 억누를 필요가 없죠. 도와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는 학생 때이면 스승이나 멘토에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 방법을 통해 점차 나만의 극복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이런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점차 구축해야 하죠. 하다보면 목표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배워나가고 마음을 열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심어줘야합니다.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더 눈팅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그럴 땐 피아노와 음악을 전공하기로 마음 먹고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를 떠올리면서 그 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PHOTOS: CHANG YOUNG SOO



연습은 얼마큼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정된 연습 기간 동안 잘해야 하죠. 어떤 환경에서도 나만의 연습 방법을 구축한다면 해낼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장르의 음악을 방대하게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포니, 실내악, 가곡 등 다양한 장르를 들면서 견문을 넓히는 게 중요하죠

박민경 한 곡을 배울 때 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속도를 늘리는 방법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곡에 따라 상이하고, 성격을 비롯해 사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단기간에 꼭 해야 하는 상황이면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죠. 곡을 어떻게 연습할지 고민해야 하고요, 속도가 안난다고 자책하지 말고 곡 전체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지인이나 선배 또는 스승에게 질문도 해보고, 초견 속도를 늘리기 위해 방법을 찾는 등 본인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죠.

김혜빈 현대로 갈수록 악보들이 난해해지는 경우가 다반수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대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자이몬트의 작품을 음반으로 녹음할 때는 작곡가를 직접 만나서 작곡 배경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일 경우 직접 접촉할 수 있다면 작곡가의 관점에 훨씬 가깝게 다가갈 수 있죠. 무엇보다 현대 음악 특유의 언어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보를 공부해야 하고, 작품이 추구하는 언어 및 모티브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작곡가의 표현 방법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해를 하는 것까지가 어려우니까 그 작곡가의 작품을 많이 찾아보고 음반이나 음원이 있다면 들으면서 귀로도 익혀야 합

니다. 예를 들어 바르토크를 한다면 바르토크의 현악 사중주나 오케스트라 작품, 민속 음악 등을 들어서 특유의 어법을 캐치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몰랐던 점이 발견되고, 연주하려는 곡을 다시 접하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박근우 새 곡을 읽으실 때 음표를 먼저 손에 익히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지요? 악보 볼 때의 노하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는데요, 쉽게 와닿지 않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작품일 경우 익숙해 지도록 다른 작품을 많이 들어봐서 머리로 먼저 이해를 하고, 특유의 어법을 알아야 하죠. 예를 들어 프로코피예프 <소나타 6번>이 생소하다면 효과와 생동감,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프로코피예프의 다른 소나타를 비롯해 다른 음악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음반을 들 때는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차용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고 주의해야 하죠.

김혜빈 선생님은 음악적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여 찾으셨는지,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쌓아야



김혜빈



박근우



박민영

내 것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창의력을 기르고 상상력을 키워야해요. 포르테만도 여러 종류가 있고 페달도 반 페달에서부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궁무진한 것을 시도하고 탐험하면서 만들어가야하고,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해요. 많은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들어서 분별을 하고 귀 훈련을 해야 하고, 피아노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로로 다른 건문을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 것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창의력을 기르고 상상력을 키워야해요. 포르테만도 여러 종류가 있고 페달도 반 페달에서부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궁무진한 것을 시도하고 탐험하면서 만들어가야하고,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레퍼토리를 점차 늘려가면서 끊임 없이 고민해 고집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야 하죠. 원하는 걸 찾았으면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요. 또한 큰 무대이건 작은 무대에서건 연주를 많이하고, 무엇보다 실내악을 많이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연주자와 함께 하면 귀가 발전되고 즐거움도 커지죠.

박민영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생각이 많이 드는 시점인데요. 전문 연주자 외에 어떤 직업이 더 있는지, 그리고 추천할 만한 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피아노 전공자가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주자의 경우도 독주만 고집하지 않고 실내악에 보다 재미를 느낀다면 그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뮤직 테라피, 뮤직 매니지먼트, 음악학을 비롯해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존재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무대 공포증이 심해 선천적으로 연주자와 안맞는 분이 음악학 쪽으로 진로를 바꿔서 현재 저명한 음악 학자가 되었죠. 커리어 오피서라고 해서 커리어에 대해 코치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귀가 좋다면 테크놀로지와 접목이 된 분야인 레코딩 전문가를 할 수 있는 등, 찾아보면 여러가지 길이 있어요.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안되더라도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음악이라는 분야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의미가 크죠. 무엇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치고 공부를 많이 해야하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하면서 목표를 이룰 순 없으니까요.

박근우 지금 저희 나이 때 피아노를 하시면서 유학, 석박사 등 미래의 계획을 세우셨는지,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는지요? 또한 피아노 전공생들이 많고 잘 치는 사람이 많아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셨는지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나는 유학을 비교적 일찍 갔고 목표는 항상 있었지만, 모든 순간에 자신감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매 과정을 거칠 때마다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잡고 나아가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현재 확실한 답이 없다고 불안해 하지는 말길 바라구요. 모든 것은 사회에 나가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니까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사회나 학교가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보다 내가 무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기로에서 걱정이 있는 것은 누구나 같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정했다면 정한 길을 믿고 묵묵히 가야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불안감을 없애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언을 구해야 해요.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지만 전문가이자 경험이 많은 선배나 스승과 상담해야 하는데요, 내 경우는 실내악을 코치하던 분에게 조언을 구해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벌써 어느 콩쿠르에 입상했는데 라는식으로 남과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해요. 흔들리고 혼동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기 것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나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필요하죠. 긴 여행인데, 인내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남학생의 경우 콩쿠르의 입상이 군 문제와 연관되기도 하는 데, 이럴 경우 단순한 진리지만 더욱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되도 실망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다 자신에게 경험이 되고 재산이 됩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경험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야하고 더 적극적으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길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

글 | 윤석진